

공 개



의안번호	제 18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2. 4. 20. (제8차)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2. 4. 20.

## 1. 보고주문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2. 보고이유

최근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중 논의결과에 의한 회계처리와 現실무가 달라, 과거의 회계처리를 모두 소급 재작성 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애로가 제기되었는 바, 올바른 회계처리를 안내하고 기업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지침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립니다

## 3. 주요내용

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중요한 회계오류는 소급 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이 가능함. 동 건은 과거시점으로 소급하여 콜옵션 공정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과거 경영진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 반영 가능성 등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계처리의 전진적용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 4. 참고사항

붙임1.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반영 회신(안)

붙임2. 제3자 지정 콜옵션 관련 국내 전환사채 발행규모 및 현황

붙임3. 관련 회계기준

##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보고

### 1. 검토배경

- (개요) 전환사채를 발행한 A사가 전환사채를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시, A사는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접수(회계기준원)

\* 콜옵션 內 권리 : ①A사가 전환사채를 직접 매입(사채 상환) 가능(→수의상환권) & ②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가능(→제3자 지정·양도권)

- 동 안건은 K-IFRS 질의회신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21.12.16, '22.1.27), 이견 없이 합의된 결론을 도출

\*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이 공동 운영하는 'K-IFRS 질의회신 자문기구'로서, 공동위원장(금감원 회계관리국장 또는 기준원 상임위원)과 위원(금감원 1인, 기준원 1인, 민간전문가 9인) 13인으로 구성

#### < 질의회신 주요 내용(☞ 회신(안) 세부 내용 : 붙임 1.) >

- (질의사항) 전환사채를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전환사채와 분리되는 별도의 파생상품인지, 아니면 전환사채에 내재(內在)된 파생상품인지?

\* 콜옵션 = 수의상환권 + 제3자 지정권

- (연석회의 결론) 해당 콜옵션은 향후 제3자 지정을 통해 A사 외의 당사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임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임 (K-IFRS 제1109호 문단 4.3.1)

- (실무영향) (종전에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부채·자본과 상계하여 표시하였으나) 연석회의 논의결과에 따르면 콜옵션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 필요

-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면, 과거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 직면

\* 콜옵션을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 후, 매기 공정가치 평가(평가손익 인식)

- ⇒ 이에, 금융위원회 등은 올바른 회계처리를 안내하고 기업의 회계처리 실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지침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립니다

## 2. 세부 영향 분석

□ **(실무 현황)** 그간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이 아닌, 전환사채에 포함된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21년 국내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총 565건) 및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붙임 2.)

\*\* 근거 : ① 제3자 지정권은 실제 지정 전에는 계약 당사자가 없어서 회계사건이 아니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이 아닌 전환사채에 포함된 것으로 본 측면, ② 회사가 지정여부를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를 본인으로 보아 전환사채에 귀속되는 계약으로 간주

### ○ 최초 발행 시점

- **(현행)** 사채권에 포함된 파생상품\*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구분 표시하지 않고 전환사채 장부금액\*\*과 상계하여 표시

\* '시장금리가 하락'하거나 'A사의 주가가 하락(주식 전환 가능성 ↓)'하면 사채의 조기상환 유인(콜옵션 행사 유인) 증가

\*\* 전환사채 총 장부금액 : 사채권(부채) + 풋옵션(부채) + 전환권(부채 또는 자본)

- **(수정)** 풋옵션, 전환권 등과 상계하지 않고, 전환사채와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 표시

### ○ 매기말 시점

- **(현행)** 콜옵션자산(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수정)** 콜옵션자산(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구분 표시함

□ **(실무 영향)** (종전에는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부채·자본과 상계하여 표시하였으나) 연석회의 결론에 따르면 콜옵션을 별도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

\* 풋옵션과 전환권은 종전과 같이 부채요소 또는 자본요소 인식

➡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면, 과거 해당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 직면

\* 콜옵션을 전환사채와 분리된 파생상품(자산)으로 보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 후, 매기 공정가치 평가(평가손익 인식) 해야 함

### 3.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론에 따라, 제3자 지정으로 전환사채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안내
- 다만, 그간 실무관행\*, 과거 발행한 콜옵션을 발행시점에서 재평가하는 실무 어려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진적용 허용
  - \* 실무는 해당 콜옵션을 별도 자산이 아닌 전환사채 장부금액(부채자본)과 상계하여 표시해 왔음
- K-IFRS 원칙上 중요한 회계오류는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진적용 가능
  - (적용 범위) 감독지침안을 공표하기 이전에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이미 발행한 거래도 포함\*
  - \* 다만, 당기중 오류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시점 이전에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
  -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안을 공표한 이후 최초로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 ① 재무제표를 과거시점에서 소급 재작성하기 위해 콜옵션을 재평가할 때, 소급 재작성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 불가능 할 수 있음\*
  - \*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경우 : ① 소급재작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대상 과거기간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③ 소급재작성을 위해 유의적인 추정이 필요하나 필요한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K-IFRS 제1008호 문단 5)
- ② 과거로 소급하여 콜옵션 공정가치를 재평가할 경우, 오랜 기간 경과에 따른 사후정보 반영 등 정보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 유발 가능
- ③ 사채 상환권(콜, 풋)과 사채內 주식 전환권간의 상호 의존성\* 고려시, 공정가치 측정으로 인한 순자산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 콜옵션 : 자산 인식, 풋옵션 : 부채 인식, 전환권 : 부채 또는 자본 인식
  - \*\*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은 주가 변동성, 전환권 행사가능성, 보유자의 풋옵션 행사가능성 등 계약상 모든 약정의 상호 의존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가정

### 4. 향후계획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배포

## <붙임 1 : 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 논의결과 반영 회신(안) >

### 1. 배경

- ☐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같은 거래 당사자와 동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함

#### < 전환사채 및 콜옵션 발행 조건 >

##### ■ 전환사채 조건(전환권, 풋옵션 포함)

- 발행금액 : 100억원(만기 5년)
- 표면이자 : 0% (단, 만기까지 전환권 미행사시 연 2% 이자를 보장)
- **전환권\*** : 특정 산식에 기초하여 회사의 주가에 따라 전환가액 변동  
→ 전환주식수 변동 (주가하락시 전환주식수 증가)

\* 전환사채 보유자는 전환권 행사로 사채의 권리(원금과 이자) 대신 주식의 권리를 획득

- **풋옵션\*** : 발행금액에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전환사채 보유자가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자(회사)에게 행사금액으로 만기전에 사채상환을 요구할 권리

##### ■ 콜옵션\* 조건

\* 행사 시 특정 행사금액으로 기 전환사채 보유자로부터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획득

- '전환사채 발행자(회사)'나 '**그 발행자가 지정한 제3자**'가 **보유·행사**할 수 있음
- 콜옵션 보유자는 전환사채 약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발행금액에서 연 2% 복리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행사가능

※ 회사가 해당 콜옵션을 회사의 임직원에게 무상 부여할 경우, 그 임직원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행사금액(예: 100원)보다 가치가 높은 전환사채(예: 시장가치 120원)를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예: 20원 = 120원 - 100원)을 얻을 수 있음

### 2. 질의내용

- ☐ 회사의 콜옵션이 전환사채에 대한 내재파생상품인지 별도의 금융상품인지?

### 3. 회신(안)

1. 2021년 10월 13일자로 당원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의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부채, 자본 분류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으며, 해당 질의사항을 제외한 다른 회계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회사가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의 권리행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회사가 콜옵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 및 풋옵션)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 그 콜옵션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3. 상기 결론의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4.3.1

나. 판단 근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르면,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입니다.
- (2) 회사가 콜옵션의 행사자로서 회사가 아닌 제3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 지정된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면 질의의 콜옵션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즉, 회사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자, 원금의 지급, 전환권 행사에 따른 지분상품의 발행 등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자의 의무를 여전히 회사가 부담한다면, 해당 콜옵션은 동 기준서 문단 4.3.1의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처리합니다.

4. 참고로 본 회신은 귀 질의에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제시한 조건과 사실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회계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이 회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대한 의견으로서 귀 질의에 한하여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이 회신의 내용이 향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의 의견과 상이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IASB 또는 IFRS IC의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끝.

♣ 색인어: 매수콜옵션, 콜옵션 분리가능성,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



## <붙임 2 : 국내 제3자 지정 콜옵션 관련 전환사채 발행규모 및 현황 >

※ 회계기준원에서 대형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 해외에서는 제3자 지정 등 유사한 조건의 콜옵션이 발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 □ (자료원)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 <https://kind.krx.co.kr>)을 통해 추출

\*\* '21.1.1일 이전 발행, '21년 중 발행취소 및 철회된 경우 등은 제외

○ (조사대상)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중, '21년 동안 「전환사채권 발행 공시」를 한 12월말 법인

○ (대상기간) '21.1.1일 ~ '21.12.31일(청약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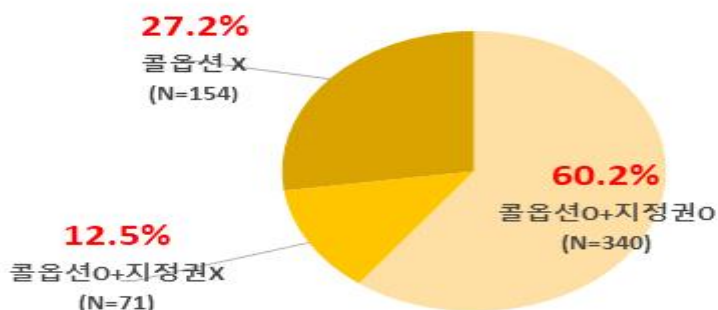
- 기업공시시스템(KIND, 한국거래소)을 통해, '21년 말 기준 12월말 법인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전환사채 발행 현황 >

	(단위 건수)
KIND시스템에 '21년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공시 총 건수	총 704건
(-) '21년 중에 발행취소, 철회된 경우 및 청약일이 '21년 이전인 경우	(139건)
소 계	565건
(-) 전환사채에 콜옵션이 부여되지 않거나, 제3자 지정권이 없는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225건)
전환사채에 제3자 지정권이 포함된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60%)	340건

□ (조사결과) 국내 상장사(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가 '21년 발행한 전환사채 총 565건 중, 질의의 조건과 유사하게 제3자 지정권이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는 340건(약 60%)으로 질의회신의 영향이 적지 않음

### < '21년 발행 전환사채 건 중 콜옵션 부가 현황(N=565) >



- 제3자 지정가능 콜옵션 금액은 전환사채 별로 다양하며, 콜옵션 행사 대상 금액은 전환사채 권면금액 대비 20~40%인 경우가 대부분

### < 관련 전환사채 발행 상황 ('2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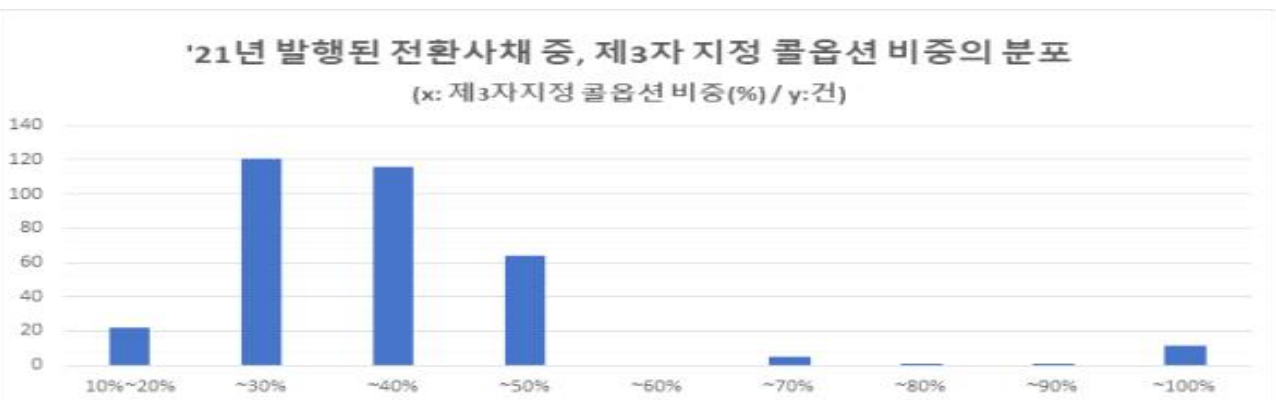
#### (1) 전환사채 중 콜옵션 및 콜옵션의 제3자 지정권 포함 비중



[그림1]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 '21년 발행된 전환사채 중 **질 의와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는 **약 60% 정도**

#### (2) 콜옵션 제3자 지정권 대상 전환사채 권면금액 비중



[그림2] 전환사채에 대해 콜옵션 제3자 지정권이 부여된 비중

→ **질 의와 유사한** 조건으로 '21년 발행된 전환사채 권면 금액(총 10.37조원) 중 콜옵션 대상 금액은 **20~40%가 가장 많음**(건수)(금액: 5.07조원, 총 권면금액의 약 49%에 해당)

➡ '21년 국내 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및 대형 회계법인을 통해 파악한 결과,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처리한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 참고

### ※ 상장시장 유형 별 전환사채 콜옵션 현황('21년 기준)

#### □ 시장별 전환사채 발행 현황

상장시장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건수(건)	105	433	27	565
비중(%)	18.58	76.64	4.78	100

→ 전환사채 발행건수는 코스닥 시장이 가장 많음(76.64%)

#### ① 유가증권 시장 전환사채 발행 현황

유가증권시장		제3자 지정 콜옵션 발행	
		有(비중%)	無(비중%)
콜옵션 ○	63건(60%)	46(44%*)	17(16%)
콜옵션 ×	42건(40%)	해당 없음	
합계	105건(100%)		

\* (유가증권시장) 전환사채 발행 총 105건 기준

→ 발행 전환사채 중 약 44%가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가

#### ② 코스닥 시장 전환사채 발행 현황

코스닥시장		제3자 지정 콜옵션 발행	
		有(비중%)	無(비중%)
콜옵션 ○	337건(78%)	285(66%*)	52(12%)
콜옵션 ×	96건(22%)	해당 없음	
합계	433건(100%)		

\* (코스닥시장) 전환사채 발행 총 433건 기준

→ 발행 전환사채 중 약 66%가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가

#### ③ 코넥스 시장 전환사채 발행 현황

코스닥시장		제3자 지정 콜옵션 발행	
		有(비중%)	無(비중%)
콜옵션 ○	11건(41%)	9(33%*)	2(8%)
콜옵션 ×	16건(59%)	해당 없음	
합계	27건(100%)		

\* (코넥스시장) 전환사채 발행 총 27건 기준

→ 발행 전환사채 중 약 33%가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가

※ '21년 발행 전환사채(건) 중 약 60%에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가

## 〈붙임 3 : 관련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용어의 정의

---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이나 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 (1)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2)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대상 과거기간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 (3)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금액의 유의적인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가) 추정금액을 인식, 측정, 공시하여야 하는 시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 (나) 해당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 가능하였었을 정보

### 소급재작성의 한계

43 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 44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은 당기일 수도 있음).
- 45 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 46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 재무자료의 요약에 포함된 과거기간의 정보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대한 앞선 기간까지 소급재작성한다.
- 47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금액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예: 회계정책 적용 오류 등), 문단 45에 따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따라서 적용시점 이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누적효과의 조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문단 50~53은 실무적으로 오류수정을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

- 50 당기와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를 실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문단 51~53에서는 과거기간에의 전진적용을 포함),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소급재작성하는 데 적합한 과거기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정보를 실무적으로 재생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51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인식되거나 공시된 재무제표 구성요소에 회계정책을 적용할 때 추정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 추정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보고기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소급적용 및 소급재작성으로 영향 받는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후 여러 회계기간이 지난 시점에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소급재작성하는 경우 추정은 더 어려울 수 있다. 과거기간과 관련된 추정의 목적은 당기에 이루어진 추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추정의 목적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 존재하였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 52 그러므로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적용하거나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 (1)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시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 (2) 거해당 과거기간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 특정 유형의 추정의 경우(예: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이 유의적인 추정을 필요로 하지만, 위와 같은 두 가지 속성을 모두 지닌 정보를 그 밖의 정보와 실무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새로운 회계 정책이나 전기오류의 수정을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제4.3절 내재파생상품

-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

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5